

초기 기독교 교회건축에서 로마 바실리카의 기독교화와 기독교 건축의 로마화에 관한 연구*

- 4세기 콘스탄티누스 바실리카 교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ristianization of Roman Basilica and Romanization of Christian Building on the Early Christian Church Architecture

- Focused on the 4th Century Constantinus Basilica Churches -

Author 홍순명 Hong, Soon-Myung / 정희원, 삼육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which analyzed 4th century Constantinus basilica church architecture is on how the Roman basilica architecture became to christianized and christian architecture became romanized. Basilica architecture of Rome which has strong public characteristic had approach from various direction, especially it has formed inter communicable open space to center forum. Even though, the early christian church has became to bigger size on the process of domus ecclesia centered growth, but it has formed essentially unhierarchy community of home based, it also seemed to have loose religious community below hundred. The result of analyzing 22 of 4 century basilica churches had been shown that more than 60% of them were built on historical place such as tomb of martyr, nearly 70% of them were long axis type, the size of church showed up 3,200㎡ of average total area. In conclusion, this study concluded the result of christianized showed closeness pursue holiness by separation from the secular world, and long axis it was revealed as mass for the procession ceremony of catholic church. The result of romanized occurred from the process that the basilica church abandoned the unhierarchy, small sizing, worship simplicity of early domus ecclesia characteristics and accept hierarchy, big sizing, worship formalism and complexity of Roman empire system in the roman basilica churches. Through this study it could be grasp that the romanized of early christianity bring not only the change of church architecture but also degeneration of christian itself.

Keywords 바실리카 교회, 기독교화, 로마화
Basilica Church, Christianization, Romaniza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인류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중의 하나는 로마문명과 기독교 문명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4세기경에 일어난 변혁은 4,000여 년 간 이어진 신전중심의 건축에서 교회건축으로 바뀌었다. 기원후 1세기 초부터 형성되던 기독교 운동은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diaspora)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로마에 교회가 형성되었고 사도 바

울은 그 교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신약성경의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서를 저술하게 된다.

초기 기독교 교회는 자생적 건축문화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로마의 제국종교로 성장하게 된다. 이때 그들이 채택한 교회건축은 로마 바실리카 양식으로, 이는 법정이나 시장의 기능을 가진 사회적 성격의 건물이었다.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주도 하에 바실리카 교회가 많이 건축되었는데 그 장소와 형태, 기능 역시 매우 다양하다 하겠다.

이때 사회적 기능을 가진 로마 바실리카가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독교 교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건물배치와 평면 입면 등 모든 영역에서 상당한 구조 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공간의 확장과 예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삼육대학교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배 기능의 수용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교회가 로마의 시스템과 전통을 받아들이면서 본래의 기독교적 요소가 아닌 위계성과 화려함을 수용하면서 기독교 자체가 변형되는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층된 문명의 상호융합적 관점에서 초기 기독교 교회건축이 어떻게 로마 바실리카의 건축양식을 수용 및 변용하였는가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절하게 변화시킨 부분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기독교 교회건축이 역으로 로마화되는 현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22개 사례의 도면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바실리카의 기독교화, 기독교 건축의 로마 바실리카화의 과정을 건축적 입장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초기 기독교 바실리카 교회가 왕성하게 건축되기 시작한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바실리카를 중심으로 하였다. 또한 콘스탄티누스 사후 그가 계획한 건물들이 연장선상에서 건축되었으므로 그 영향력을 고려한 4세기 후반까지의 기독교 바실리카 교회건축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공간적으로는 고대 로마의 관할지역 전체가 포함된다. 바실리카 교회건축의 중심이 되었던 이태리에서는 로마의 메이저 바실리카 교회(major basilica)¹⁾를 중심으로 8개의 교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밀라노에 위치한 3교회, 아퀼레이아에 위치한 3교회를 포함하여 13개 교회를 선정하였다. 이태리 이외의 국가에서는 이스라엘에서 3교회, 독일에서 3교회, 터키에서 2교회, 알제리에서 1교회로 9교회를 분석대상 건물로 선택하여 총 22개 교회를 이번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4세기 기독교 교회건축 자체가 그리 많지 않고, 이 중 연구대상이 될 만한 주요건물은 모두 포함되었기에 선정된 대상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하겠다. <그림 1>은 로마시내의 중요 바실리카 교회의 위치를 보여주는 도면²⁾이다.

1)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바실리카 교회를 대 바실리카(major basilica) 교회와 소 바실리카(minor basilica)교회로 나누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서열화하였다. 특히 로마에 있는 라테란 바실리카(Lateran Basilica)는 수위 바실리카(archbasilica)라 호칭되었고, 이어서 바티칸 바실리카(Vatican basilica)라 불리우는 성 베드로 성당, 오스티엔 바실리카(Ostian basilica)로 불리우는 성(城) 밖 성 바울교회, 리버리엔 바실리카(Liberian basilica)로 불리우는 대 성모마리아 교회 등 4개의 바실리카는 교황교회(Papal basilicas)라 칭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범위를 4세기 교회건축으로 한정했기에 5세기에 건축된 성모마리아 교회를 제외한 3개의 메이저 바실리카만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

Ancient Roman Architecture: Colosseum, Architecture of Ancient Rome, Vitruvius, Roman Villa, Fishbourne Roman Palace, Basilica, Books LLC, 2010, pp.58-59

2) Philippe Pergola, Christian Rome, Early Christian Rome, Catacombs

연구의 방법으로는 로마의 주요 교회와 이스라엘의 성묘교회 그리고 예수탄생교회는 직접 방문조사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외의 교회들은 본인이 진행한 바실리카 건축에 대한 선행연구³⁾의 결과와 참고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 로마 도시의 중요 바실리카 교회 위치도

1.3. 용어의 정의와 연구 흐름도

먼저 본 논문에서 사용된 기독교화와 로마화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고자 한다. 바실리카 건축의 기독교화는 로마 공공 바실리카를 원형(原形)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기독교 교회건축을 변형(變形)으로 설정한 후, 그리스도교 예배형식(liturgy)이라는 내부요인과 사회적 환경이라는 외부요인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원형적 로마 공공 바실리카를 기독교 교회건축으로 변천 및 발전시켜왔는가를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교회건축형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바실리카 건축의 기독교화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건축사 분야에서 이런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일례로 박학재 교수는 바실리카 에이밀리아(Aemilia)를 로마네스크와 고딕 장축형 라틴 크로스(Latin cross)의 원형으로, 바실리카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를 르네상스의 중앙 집중형 그리 크로스(Greek cross)의 원형으로 제시하고 있다.⁴⁾

다음의 기독교건축의 로마화는 콘스탄티누스 이전(pre Constantinus) 초기 기독교 건축의 중심이었던 도무스에클레시아(Domus ecclesia)를 교회 건축의 원형으로 하고, 밀라노 칙령이후 바실리카 교회를 변형으로 설정한 후, 바실리카 교회건축이 어떻게 그 건축형태와 성격 자체가 로마 공공바실리카의 특성으로 변화되어갔는가를

and Basilicas, Vision S.r.l, 2000, back cover 에서 인용함.

3) 홍순명, 초기 기독교 교회건축의 형성 모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6권 제1호 통권 255호, 2010.1

홍순명, 로마시대 공공 바실리카의 평면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9권 6호, 2010.12

홍순명, 바실리카 교회건축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제35호, 20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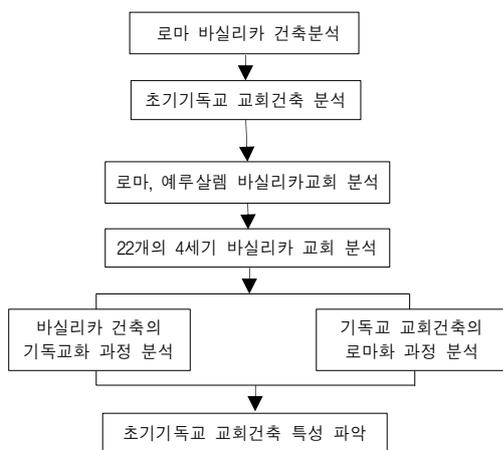
홍순명, 로마 공공 바실리카와 기독교 바실리카교회의 평면특성 비교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제41호, 2012.2

4) 박학재, 서양건축사정론, 상조사, 1981, p.400

파악하는 것을 기독교건축의 로마화라는 용어정의로 사용하였다.

전자에 비해 이 분야의 연구는 거의 미미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교회건축은 알려진바 없어 교회사가 아돌프 하르낙(Adolf von Harnack)이 바실리카 건축을 기독교건축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한 이래 그것이 정설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발굴 결과 바실리카 교회건축 이전의 가정교회나 도무스 에클레시아 등이 매우 중요한 건축으로 등장하면서, 마이클 화이트(Michael White)과 같은 학자는 기독교 교회건축의 역사에 “두 개의 랜드마크(landmark)가 있는데 하나는 도무스 에클레시아와 같은 가정형 교회요, 또 하나는 바실리카 교회이다”⁵⁾라고 언급하면서 두 양식 모두를 기독교 교회건축의 중요한 원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르낙의 이론보다 화이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인의 선행연구인 “초기 기독교 교회건축의 형성 모델에 관한 연구”에서 화이트가 제시한 이론에 근거하여 바실리카 건축과 아울러 도무스 에클레시아를 중요한 기독교 교회 건축의 원형적 모델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상기의 기독교화, 로마화라는 두 개의 중요한 변화 과정을 추적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내적 성격을 파악하는 정성적(定性的) 분석 방법보다는 건물의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는 정량적(定量的) 분석방법을 채택하여 건물의 규모, 형태, 배치특성 등의 외적인 요소에서 기독교화, 로마화라는 건축적 특성을 찾아보고자 하여 4세기의 22개의 바실리카 교회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교리나 교회예식의 변천, 그리고 당시 시대적 변화 요소 등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고자 제외하였다.



<그림 2> 연구의 흐름도

연구의 흐름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장에서는 로마 공공바실리카의 건축적 특성에 대해 기존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으며, 3장에서는 콘스탄티누스 이전 초기 기독교 건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본 연구의 22개 샘플 중 핵심교회가 되는 로마와 예루살렘의 4개의 교회건축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5장에서는 22개 교회의 분석결과에 대해 이미 분석된 로마 공공바실리카와 초기 기독교 건축과 비교하면서 로마 바실리카의 기독교화 과정과 도무스 에클레시아의 로마화 과정의 특성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추출된 결론내용을 6장으로 배치하는 구성을 따른다.

2. 로마 바실리카 건축

바실리카 공간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포름이라는 모공간(母空間)과의 관계이다. 포름을 둘러싼 구성은 바실리카, 신전, 쿠리아(curia), 시장, 공중욕장, 원형극장 등이 있었으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바실리카와 신전 건물이다. 그리스의 아고라(agora)에서 연유된 포름은 로마의 특성에 맞게 변화되어 왔다.

바실리카의 진입은 크게 장변에서의 진입과 단변에서의 진입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파노 바실리카와 같이 초기 건물들은 장변진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후에 장변진입보다는 단변진입 형태로 바뀌는데 초기의 가장 중요한 사례가 폼페이 바실리카이다. 이는 긴 포름하단 우측 위치한 바실리카로 단변이 포름에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삼랑식 단변진입 바실리카를 형성하게 되었다.

바실리카 평면유형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회랑유형, 앱스 유무와 개수, 진입방향, 가로와 세로의 비례관계, 바실리카의 규모 등이 있다. 로마 공공 바실리카의 회랑유형 분석결과 신랑과 두개의 측랑으로 구성된 삼랑식(三廊式) 바실리카가 로마 공공 바실리카 중 2/3 정도를 차지하는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전형적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로마 바실리카 뿐 아니라 후에 기독교 교회건축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바실리카 건축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기독교 바실리카 교회에는 90%이상 앱스가 설치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로마 바실리카에서 앱스는 그리 많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편이다. 로마 공공 바실리카 전체 중 2/3 가까이가 앱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로마 바실리카의 건물의 진입축도 전체의 2/3가 장변측에서 진입하고 1/3 정도가 단변 측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로마 바실리카의 개방성 및 접근성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로마 바실리카의 가로세로의 비는 최소 1: 1.1에서 최대 1: 5.9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평균 1: 2.3으로 안정된 비례를 형태

5) L. Michael White, The Social Origin of Christian Architectur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0, p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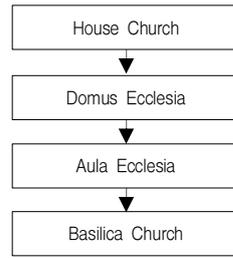
를 유지하고 있었고 바실리카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인 면적분석에서 로마 공공 바실리카의 규모는 전체평균 2,000㎡ 정도⁶⁾로 나타났다.

3.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초기 기독교 교회 건축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정교회는 보통 디아스포라 이후 50-150년 사이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 신도들이 증가하면서 150-250년 사이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예배공간이었던 도무스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교회를 위한 집(the house of the church)이라고 해석되는 도무스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교회전용 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었다. 이 공동체 모임 공간은 외부형태는 주택이면서도 내부공간은 그 당시 기독교 교회 기능에 맞게 개조되어 성찬식과 침례식 등의 교회예식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건축된 정규적 교회전용의 공동체공간을 도무스 에클레시아로 정의⁷⁾하였던 것이다.

시리아의 두라 에우로포스(Dura Europus)에서 발굴된 초기 기독교교회건물은 전형적인 도무스 에클레시아 교회로 두 개의 기둥이 서 있는 현관을 지나 중정을 통해 각 실로 접근하도록 되어 있었다. 중정의 원편은 주 집회실로 동측 벽면에 작은 단상이 있어 이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 공간에서 말씀과 성찬식 등의 교회예식이 이루어졌을 것⁸⁾으로 보인다. 내부공간은 위계적 구조가 아닌 보통 주택의 균질공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초기 기독교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기독교 교회건축의 공백기로 알려진 50-313년 사이에 교회건축은 가정교회를 거쳐 교회건축역사에 독특한 형태인 교회를 위한 집인 도무스 에클레시아로 초기 기독교 건축이 일차적으로 완결되었고, 이어서 홀 형 교회인 아울라 에클레시아(aula ecclesia)를 거쳐 바실리카 교회건축으로 최종 완성점에 도달한다. 이러한 교회 건물들이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로 성장하기까지 초기 기독교의 생동감 있는 교회 공간으로의 기능을 충실히 담당해 왔음을 여러 고고학적 증거⁹⁾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 교회건축의 변천과정

4. 4세기의 바실리카 교회건축

<표 1> 4세기 바실리카교회 조사 대상교회

국가	도시	연대	교회명칭
Italy	Rome	313	St. John Lateran
	Rome	319	Old St. Peter
	Rome	324-	St. Agnese
	Rome	329	St. Croce
	Rome	350	St. Costanza
	Rome	380	St. Paul
	Rome	380	St. Clemente
	Rome	4세기	Our Lady in Trastevere
	Milano	336	St. Lorenzo
	Milano	382	St. Nazaro
Israel	Milano	4세기 말	St. Simpliciano
	Aquileia	350	Aquileia Cathedral
	Aquileia	4세기	Twin cathedral
	Jerusalem	333	the Nativity
Germany	Jerusalem	345	Holy Sepulchre
	Jerusalem	4세기	church of Ascend
	Trier	326	Twin Cathedral
Turkey	Trier	4세기	Trier basilica
	Koeln	380	St. Gereon
Algeria	Antioch	379	St. Babylas
	Ephesos	4세기	St. Mary
	Orleansville	324	Orleansville

본 장에서 다루는 4세기의 바실리카 교회 건축 연구를 위하여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2개 교회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중심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심혈을 기울여 건축한 로마의 4개의 메이저 바실리카(Major Basilica)와 예루살렘의 예수탄생교회(Church of the Nativity)와 성묘교회(Holy Sepulchre)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세기 바실리카 교회건축의 분석은 먼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의 4대 바실리카 중 매우 중요한 특성을 가진 성 요한 라테란 교회와 성 베드로 바실리카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전기한 예루살렘의 두 바실리카 교회의 변천과정을 분석한 이후, 22개 케이스를 전체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4세기 기독교 바실리카 교회의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각 바실리카 교회의 분포도에서 보듯이 로마 시에 건축된 바실리카 교회가 8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밀라노, 예루살렘, 이컬레이아, 트리에르 순서이다.

4.1. 로마의 중요 바실리카 교회

로마에서는 4대 메이저 바실리카를 최고의 서열인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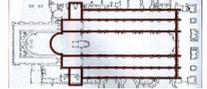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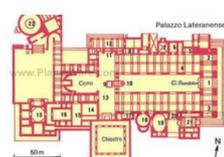
6) 홍순명, 로마시대 공공 바실리카의 평면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상계서, pp.158-159
 7) L. Michael White, 전계서, p.114
 8) 상계서, pp.107-108
 9) Richard Krautheimer, Early Christian and Byzantine Architecture, Penguin Books Ltd., 1979, p.29

황교회(Papal basilicas)로, 그 다음 교회를 교황청 소속 교회(Pontifical basilica), 그리고 여러 개의 소 바실리카(minor basilica)로 분류¹⁰⁾하고 있어 4세기의 바실리카 교회의 확실한 서열과 위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장에서는 그중 대표적 교회인 수석 바실리카의 라테란 교회와 4세기 교회 중 가장 규모가 웅장하고 권위가 있는 성 베드로 교회의 분석을 통하여 바실리카 교회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라테란 바실리카

라테란 교회(Lateran basilica)는 로마에 건축된 최초의 바실리카 교회이며 수석 바실리카로 불리는 전형적인 장축형 5랑식 교회였다. 이 건물은 313년에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전승기념 교회로 지어졌다. 이 건물의 교회 터는 원래 도무스 에클레시아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보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연관이 있는 라테란 가문의 궁궐이나 성채였다가 후에 그곳에 라테란 교회가 건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¹¹⁾ 전체적 외형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앱스가 있는 5랑식 건물로 트란셉트(transsept)의 흔적은 보이지만 이는 라틴 크로스로 발전하기 이전의 초기 형태로 보이며, 입구에는 나르텍스(narthex)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일직선¹²⁾으로 처리되어 있다. 반면에 앱스 부분은 굴곡과 변화가 심하여 아직 기독교 바실리카 교회로 정착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라테란 교회의 변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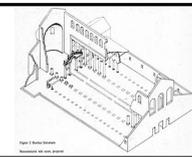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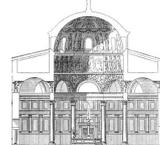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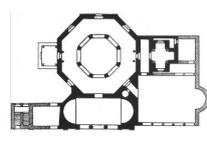
라테란 궁터	최초의 교회	현재의 교회
		

전체구조는 단순한 형태이나, 내부마감에는 화려한 장식의 나타나기 시작했다. 100개가 넘는 기둥을 대리석으로 처리하였고 제단주위로 부속제단이 여섯 개나 놓였으며 이들 모두를 금으로 만들었으며 앱스의 상부 역시 모자이크 성화와 금으로 장식되었다. 이를 위하여 황제는 금 500파운드를 하사하였고 70여개의 은으로 만들 상텔리아를 설치하여 최고로 웅장한 건물¹³⁾로 만들었으며 그 규모도 4,500㎡의 장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 옆에 설치된 침례당은 콘스탄티누스 뱀티스터리

(baptistry)라고 불리지만 실제 황제가 이곳에서 침례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임종 직전에 유세비우스에 의해 집행된 예식은 왕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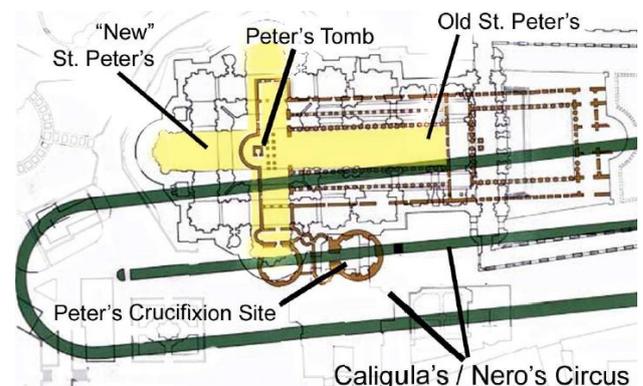
<표 3> 라테란 교회와 침례당의 단면과 평면

라테란 교회 단면도	라테란 교회 입면도
	
라테란 침례당 단면도	라테란 침례당 평면도
	

이 건물은 432년 식스투스 3세에 의해 건축되었고 형태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팔각(octagonal)의 이층구조¹⁴⁾로 된 전형적인 이탈리아식 침례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중심형 건물¹⁵⁾ 중의 하나이다.

(2) 성 베드로 바실리카

바티칸 언덕에 세워진 이 장대한 바실리카는 로마 교황이 거주하는 실제적 최고의 교회이다. 이 지역은 로마 시내에서 버려진 장소였으나 네로가 이곳에 원형 경기장을 건축하면서 개발이 시작되었다. 그 후 64년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곳에서 처형당하면서 이 장소는 순교자들의 묘지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 중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묘가 네크로폴리스(necropolis) 지역 서쪽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베드로의 묘위에 교회 건물이 들어서게 된 것이 오늘날의 성 베드로 교회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그림 4> 네로의 경기장과 베드로의 순교 터 그리고 성 베드로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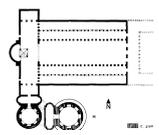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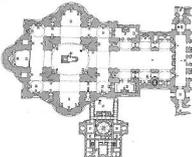
10) Ancient Roman Architecture, 전계서, pp.58-59
 11) Roberta Vicchi, The Major Basilicas of Rome, Saint Peter's, San Giovanni in Laterano, San Paolo fuori le Mura, Santa Maria Maggiore, SCALA group, 1999, pp.64-65
 12) 임석재, 서양건축사, 기독교와 인간, 2003, p.179에서 인용
 13) Roger Stalley, Early Medieval Architecture, Oxford History of Art,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20

14) 임석재, 전계서, p.179에서 인용
 15) Banister Fletcher, A History of Architecture, Charles Scribner's Sons, 1975, p.357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로의 경기장이 건축되고 그 중앙의 분리대가 설치되면서 그 한 가운데 오벨리스크가 위치16)하게 된다.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 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 후 그 원형 경기장 바로 외곽에 묻힌 것으로 전해진다. 그 무덤은 <표 4>에서 보듯이 초기 기독교인들에 의해 소규모 채플로 보존17)되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그 무덤 바로 위에 구 성 베드로 교회가 건축되었고 그 후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동일한 장소에 현재의 교회가 건축되었다.18)

<표 4>와 <표 5>에서 보듯이 구 성 베드로 교회는 그 규모나 형태 그리고 공간배치에 있어서 초기 기독교 바실리카 교회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거대한 외부계단을 통하여 접근하면 종탑이 있는 회랑(cloister)에19) 진입하게 되고, 이곳을 지나면 거대한 5랑식 바실리카 입구에 들어서게 되며 교회와 인접해 있는 회랑 끝 부분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출입구에 해당되는 나르텍스의 역할을 하게 된다.

<표 4> 성 베드로 교회의 변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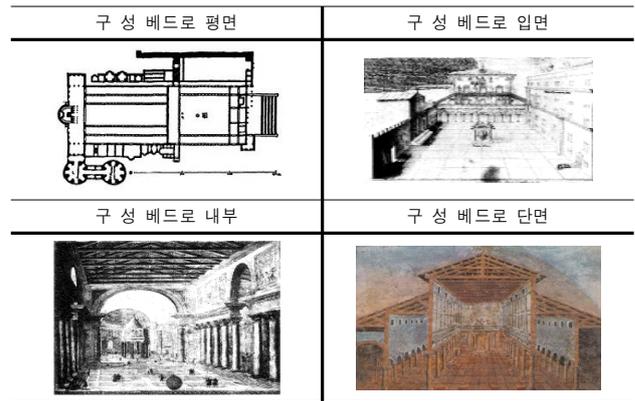
1차 평면(묘지)	2차 평면(구 교회)	3차 평면(현재교회)
		

교회 내부는 3단 네이브 율을 구성하면서 앱스까지 70여 미터의 길이로 이어진다. 주 건물 축은 당시에 엄청난 규모로, 가난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이로운 건축물이었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상부는 목조 평 천정으로 처리되었고 중앙의 앱스와 그 옆에 트란sept까지 설치되어 매우 장대하면서 화려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순교자의 기념시설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면서 형성된 트란sept가 처음 나타난 바실리카 교회가 구 성 베드로(Old St. Peter's) 교회였다. 이 교회는 바실리카교회의 제단 쪽 단변에 트란sept가 부착되듯 첨가되었고, 이 장소는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은 성직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었다. 이곳은 바로 성직자들이 종교예식을 거행하는 곳이었으며 예배의 진행 때도 성직자들만이 앉는 구별된 장소로 순교자의 기념비, 제단, 종교의식, 성직자의 장소 등을 겸하는 포괄적인 성스러운 공간20)이었다.

16) Philippe Pergola, 전게서, p.51에서 인용
 17) Roberta Vicchi, 전게서, p.14
 18) Philippe Pergola, 전게서, pp.45-51
 19) Winand W. Klassen, 서양건축사, 심우갑·조희철 역, 아키그램, 2000, p.80에서 인용
 20) 임석재, 전게서, p.185

<표 5> 구 성 베드로 교회의 평면, 입면, 내부,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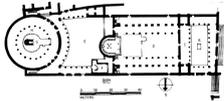
그 후 이 교회는 트란sept를 비롯한 네이브, 아일, 나르텍스 등 장축형 교회의 형태로 정리되고 발전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장축형 바실리카 교회의 전형으로 표현되는 라틴 크로스 유형으로 정착되어 고딕건축에서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4.2. 예루살렘의 중요 바실리카 교회

(1) 성묘교회

성묘교회는 교회는 기독교의 중심인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장소에 건축된 교회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모친인 성 헬레나의 후원으로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6> 성묘교회의 변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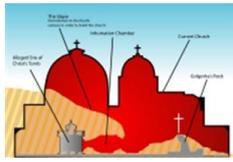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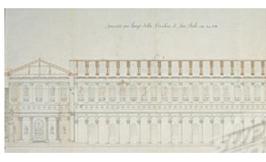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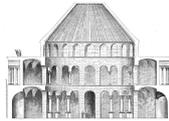
그리스도의 묘	성묘교회 로툰다 평면	성묘교회 최종 평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묘는 원래가 석굴형 분묘였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기독교인들에 의해 작은 건물로 보호되어 오다가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대규모 바실리카 교회가 건축되었던 것이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의 건물형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그 위에 건축된 원형 성묘교회는 20여 개의 기둥으로 둘러싸인 로툰다형 성묘가 건축되고 반대편에는 반원형 앱스가 설치되면서 예배교회가 아닌 분묘교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다 우측면에 바실리카 형태의 교회공간이 부가되면서 현재의 모습21)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원형의 순교자 기념 시설과 장방형의 바실리카 건축이 하나의 건물로 통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 교회의 본래 건물은 원형의 분묘건축이지만 그 이후 기독교 바실리카 교회의 기본이 되는 장축형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을 <표 6>은 잘 보여주고 있다.

21) Winand W. Klassen, 전게서, p.81에서 인용

<표 7> 성묘교회의 단면도

<p>성묘교회 전체 단면도</p> 	<p>성묘교회 횡 단면도</p> 
<p>성묘교회 로툰다 단면도</p> 	<p>성묘교회 종 단면도</p> 

전체 평면을 보면 중앙의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는 회랑이 나오고 그곳을 지나면 출입구부분에 해당되는 나르텍스를 통과하여 중앙공간에 도달한다. 회랑은 5랑식으로 되어있으며 첫 번째 기둥 열은 원형으로, 두 번째 기둥 열은 사각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네이브의 끝에 앱스가 설치되어 일반 바실리카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다른 바실리카 교회와는 달리 그곳이 끝이 아니라 다음 중정을 거쳐 그리스도 성묘의 마지막 공간에 이르러 종착지점에 다다르게 된다는 점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실리카 상부의 돔보다 성묘의 돔이 더 크게 설계되어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큼을 형태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전체 단면도²²⁾는 구성 배드로 교회와 거의 유사하나 아일 상부가 평 천정으로 처리되어있다는 점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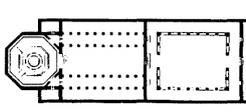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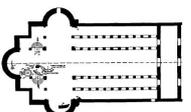
(2) 예수탄생교회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장소인 베들레헴에 건축된 교회로 예수의 탄생 기록은 신약성경 마태, 누가 복음 등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성경자체는 그리스도의 탄생장소를 말구유(manger)라고만 언급하고 있지만 248년 그곳을 방문했던 동방의 교부 중의 하나였던 오리겐(Origen)은 예수탄생장소는 동굴(cave)이었고 그 곳에 구유가 있었다고 기록²³⁾하고 있다. 이런 언급으로 보아 콘스탄티누스 이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경배하였다는 사실과 그 장소에 작은 규모의 시설이 존재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교회는 성 헬레나의 팔레스타인 방문 이후 건축된 첫 번째 바실리카 교회로 팔각형의 예수탄생 기념장소와 장방형의 5랑식 바실리카²⁴⁾의 조합으로 설계되었다. 성묘 교회와 다른 점은 원형이 아닌 8각형으로 설계되었다는 점과 기념장소와 예배당이 연결된 일체식으로 건축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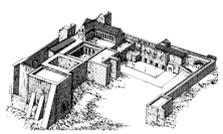
22) 임석재, 전계서, p.197에서 인용
 23) Freeman-Grenville, the Basilica of the Nativity in Bethreham, CARTA, 1993, pp. 10-11
 24) 상계서, p.18 에서 인용

<표 8> 예수 탄생교회의 변천과정

<p>탄생장소</p> 	<p>최초교회 평면</p> 	<p>현재교회 평면</p> 
---	---	--

최초교회의 평면구성을 보면 동쪽의 입구에 회랑이 설치되었고 나르텍스 기능을 가진 입구를 지나 오랑식 바실리카 교회가 위치하며 네이브와 아일은 채색된 9개의 기둥 열에 의하여 분할되고 있다, 네이브가 끝나는 지점에 팔각형의 예수 탄생기념 건물이 위치하는데 이 교회는 원형 기념건물과 바실리카가 분리되어 있는 성묘교회와는 달리 훨씬 정돈된 바실리카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예수 탄생교회의 조감도와 내부

<p>예수탄생교회 전경</p> 	<p>예수탄생교회 전체조감도</p> 
<p>예수탄생교회 건물 입체도</p> 	<p>예수탄생교회 내부</p> 

현재의 건물은 529년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사마리아인들의 반란으로 훼손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축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네이브에 설치된 기둥수를 36개에서 44개로 늘이면서 본당의 길이와 폭을 확장하였고, 입구에는 새롭게 나르텍스를 설치하여 전실의 기능을 부가하였다. 앱스 부분은 정방형이 아닌 반원형의 트란sept를 두었고 후면에도 반원형 앱을 설치하므로 전체적으로 삼엽형의 모양의 제단부를 구성²⁵⁾하였다.

이 바실리카의 규모는 약 1,440㎡로 그리 크지 않지만 현재 주요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정교회와 아르메니아 교회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들이 인접하여 여러 건물들을 건축한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금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건물군²⁶⁾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4.3. 종합적 분석

25) 상계서, pp.16-18
 26) 상계서, p.23에서 인용

<표 10> 4세기 기독교 바실리카 교회의 분석 결과

교회이름 (name)	원 장소 (place)	건축형식 (type)	규모(㎡) (scale)	교구, 교파 (position)
St. John Lateran	palace	5랑식 장축형	140×140=19,600	Archibasilica Major Basilica
Old St. Peter	Tomb	5랑식 장축형	220×150=33,000	Major Basilica
St. Agnese	Tiltula	3랑식 장축형	65×35=2,275	Minor Basilica
St. Croce	Tomb	3랑식 장축형	70×37=2,590	Minor Basilica
St. Costanza	Tomb	3겹 원형 중심형	30×30=900	Mausoleum
St. Paul	Tomb	5랑식 장축형	150×80=12,000	Major Basilica
St. Clemente	Mithraeum	3랑식 장축형	45×25=1,125	Basilica
Our Lady in Trastevere	Tiltula	3랑식 장축형	56×30=1,680	Minor Basilica
St. Lorenzo	Basilica	2겹 원형 중심형	70×35=2,450	Basilica
St. Nazaro	Tomb	3랑식 장축형	20×75=1,500	Basilica
St. Simpliciano	Cemetry	3랑식 장축형	55×40=2,200	Basilica
Aquileia Cathedral	Palace	3랑식 장축형	60×35=2,100	Cathedral
Twin cathedral	Domus Ecclesia	3랑식 장축형	37×20=2=1,480	Cathedral
the Nativity	Birth Place	5랑식 장축형	60×24=1,440	Greek Orthodox
Holy Sepulchre	Tomb	5랑식 장축형 +로톤다	140×40=5,600	Greek Orthodox
Chapel of Ascend	Ascending place	원형 중심형	12×12=144	Chapel
Twin Cathedral	Palace	이중 3랑식 장축형	73×35=2=5,110	Cathedral
Trier basilica	Palace	장축 홀형	67×26=1,742	Evangelical church
St. Gereon	Tomb	장축 중심복합형	60×35=2,100	Catholic church
St. Babylas	Tomb	스퀘어 중심형	12×22=4=1,056	Orthodox church
St. Mary	Mary's house	3랑식 장축 복합형	110×25=2,750	Cathedral
Orleansville	uncertain	오랑식 장축형	26×16=416	Cathedral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를 위하여 선정된 22개 교회는 원래의 장소(original place), 건축형식(architectural type), 건물 규모(building scale), 건물의 위상(position) 등의 4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원 장소는 총 22개 교회 중 12개의 교회인 60%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순교자의 무덤이나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 등 역사성과 장소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초기 기독교가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종교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로마 공공 바실리카가 도심 중앙의 포룸에 세워지는 것과는 비교된다. 이어서 초기 가정교회 터 위에 건축된 경우가 4개로 25%, 마지막으로 궁궐터에 세워진 바실리카 교회가 4개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 번째의 경우는 기독교가 가난한 서민교회로 하급 주거시설이었던 인솔라 등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궁궐터의 화려한 건물에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리는 귀족교회로 그 특성이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건물의 형식은 크게 장축형 바실리카 양식이 전체 22개 교회 중 15개로 68%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중심형교회가 4개로 18%, 장축과 중심 복합형교회가 3개 14%로 나타났다. 장축형 교회 중에서 60%가 3랑식이고, 33%가 5랑식, 5%인 1개의 교회만이 홀형으로 나타나 4세기의 기독교 교회 건축은 장축형 3랑식이 기본인 로마 바실리카 건축형식을 전반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도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메이저 바실리카나 황제 바실리카 교회는 거의 모두가 5랑식으로 건축되어 로마 바실리카 중에서도 트리아누스 바실리카가 5랑식, 율리아 황제 바실리카가 7랑식이었던 것과 같은 유사한 패턴의 건축형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건물 규모는 1,500㎡이하의 소규모 교회가 8개 36%이고 1,500~4,000㎡의 중규모 교회가 9개 40%, 4,000㎡이상의 대규모 교회가 5개 22%로 나타났으며 22개 전체 교회의 평균 면적은 3,208㎡로 선행 연구 27)에 의해 도출된 로마 공공 바실리카의 평균 면적 2,009㎡보다 1.5배 이상 규모가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세기 기독교는 교회건축이 아직 민간인이나 일반인들이 건축할 여력이 없는 시기여서 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 주도하게 대규모로 건축된 교회들이 많은 까닭이라고 보인다.

소속교단은 전체 22개 교회 중 로마 가톨릭교회가 18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루살렘은 동방정교회가 3개, 독일에 복음교회가 1개가 분포되어 있어 바실리카 교회는 천주교회를 대표하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로마 가톨릭에서 위계화한 교회 위상으로는 메이저(major) 바실리카가 3개 교회, 마이너(minor) 바실리카가 3개 교회, 일반(common) 바실리카가 4개 교회, 주교좌성당(cathedral)이 5개 교회, 그 외 지역교회가 3개로 분포되어 있어 로마 천주교회의 위계적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5. 로마 바실리카의 기독교화와 기독교의 로마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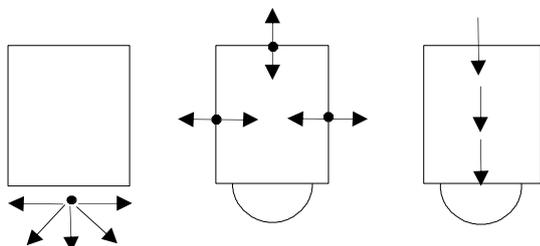
5.1. 로마 바실리카의 기독교화 과정

가정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던 초기 기독교가 로마 공공바실리카를 자신들의 건축양식으로 수용하면서 바실리카 건축은 내외부적 공간 구성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3랑식 또는 5랑식의 평면 패

27) 홍순명, 전게서, p.159

턴은 유지되고 있고 실내 구성도 네이브 윌의 2-3단 구성, 그리고 클리어스토리(clearstory)의 채광 등의 로마 바실리카 패턴은 유지되고 있지만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바실리카가 종교적 기능을 시행하는 교회로 바뀌면서 내·외부적인 건축형식이 상당히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화 요소 중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변화는 로마의 바실리카 건축의 개방성(openness)에 비교되는 기독교 바실리카 교회의 폐쇄성(closeness)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마 바실리카의 원형이 되는 그리스 신전이나 스토아(stoa) 건축은 거의 모든 행사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완전개방형 또는 반개방형 건축이었다. 이 전통은 로마 바실리카 건축에도 이어져 거의 모든 건물이 단상부분을 제외한 3면이 개방되어 인접한 포름(Forum)광장과 원활한 상호교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기독교 바실리카교회로 바뀌면서 외부공간은 세속적 공간이고 교회내부 공간만이 거룩한 장소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하면서 외부공간은 철저히 차단되어 로마 공공 바실리카 건축과는 다른 폐쇄적 바실리카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간의 진입도 장 단변을 포함 3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했던 로마 바실리카 건축과는 달리 오직 단변에서만 진입이 가능하고 그것도 회랑이나 나르텍스 등의 여러 공간을 지나야 예배공간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직선적이고 폐쇄적 공간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그림 5> 그리스 신전 완전 개방형
<그림 6> 로마바실리카 반 개방형
<그림 7> 바실리카 교회 완전 폐쇄형

두 번째는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로마 공공 바실리카가 중심성(concentration)을 추구한 것과는 달리, 기독교 바실리카 교회는 <그림 7>와 같이 장축성(long axis)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는 기독교 예배의식 가운데, 입구에서 앱스까지 이르는 거대한 순례행렬이 매우 중요한 예배의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네이브의 길이가 더 길어졌고 앱스에 다가가면서 더욱 신앙심을 고조할 수 있게 교회건축의 모든 부분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대상 22개 교회의 평균 장변 길이는 약 70m로 나타나 기독교 바실리카 교회에서 장축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는 거룩성(holiness)의 강조이다. 로마 공공 바

실리카 건축은 주 기능자체가 공공성(publicity)을 증진시켜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상업, 관람, 재판 등의 공공적 업무를 편리하게 수행하도록 계획된 반면, 기독교 바실리카 교회는 상기의 요소들을 세속적인 기능으로 보고 성과 속의 교류보다는 차별화를 선택하였다. 이는 초기 기독교의 특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바실리카 부지의 선정에 있어서도 로마 공공 바실리카는 교회의 중심지이며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름인접지역을 선정하여 공공성을 강조한 반면, 기독교 바실리카 교회는 장소의 거룩성을 강조하면서 카타콤이나 순교자의 묘가 있는 곳을 교회 부지로 선택하므로 그 현저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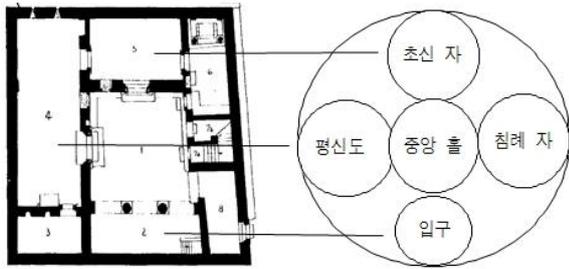
이로 인해 발생한 건축적 변화는 진입자체를 3면에서 1면으로 통제하고 그 외의 면은 두꺼운 벽으로 차단하여 외부와 분리시켰고, 출입구와 가까운 부분은 거룩함의 밀도가 낮은 기능을 배치하고 출입구와 가장 먼 앱을 최고의 거룩함을 가진 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단면계획에서도 아케이드, 트리포리움, 클리어스토리 순으로 빛의 유입량을 높임으로써 거룩성의 상승감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 갈수록 고조되도록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5.2. 기독교 바실리카 교회건축의 로마화

새로운 건축문화의 만남은 일방향으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문명의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한다. 이와 같이 로마 바실리카 건축이 기독교화되는 과정에서 역으로 기독교문화가 로마화하는 상호작용이 불가피하게 일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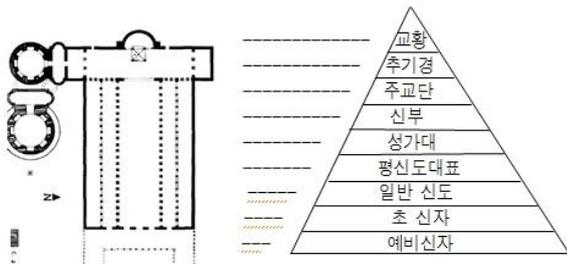
이 과정에서 나타난 기독교 교회건축의 로마화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기독교 공인 이전에 조직도 없고 위계도 없었던 단순한 서민적 모임의 특성을 탈피하여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교권체계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조직성이 초기 기독교 자체에 내재되어 있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로마제국의 강력한 국가조직 시스템을 기독교 교회가 받아들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칙적으로 삼고 있는 성경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이러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예수는 지상의 조직보다는 천상의 나라를, 그리고 외적 체계보다는 내적 신앙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나타난 건축적 변화는 매우 분명하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임 장소도 위계성이 없는 주택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 모였고 조직도 가족의 구조를 확장시키는 정도이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은 무보수로 초청받은 가정교회에서 설교하고 구도자가 있으면 침례를 베푸는 정도의 봉사를 하였고 실제적인 교회운영은 집주인과 모인사람들이 분담하여 하는 정도였다.



<그림 8> 비위계적 구조의 도무스 에클레시아 교회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라 에우로포스의 도무스 에클레시아의 구조²⁸⁾는 약간의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거의 일반의 주택의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중앙홀을 중심으로 우측에는 신도들이 모여 말씀을 듣는 예배실이 있고, 위쪽에는 초신자들이 교육을 받는 준비실, 그리고 좌측에는 소규모 침례당을 설치하여 준비된 사람들에게 침례예식을 베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교회조직이나 건축 구조상 어떤 위계성이나 체계적인 조직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림 9> 강력한 위계구조의 바실리카 교회

그러한 단순조직의 소규모 그리스도인 모임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제국의 국교를 전환되면서 로마 제국의 국가 시스템에 맞는 강력한 위계성(hierarchy)을 갖는 대규모 바실리카 교회가 건축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위계질서²⁹⁾가 가장 높은 공간인 앱스는 교황이나 자신을 12사도를 계승한 13번째 사도라고 생각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자리가 되고, 앱스에 이어지는 트란sept는 순교자들의 기념채플과 함께 추기경이나 주교단의 자리가 되고, 앱스와 트란sept과 네이브가 만나는 크로싱(crossing) 자리는 사제나 부제 또는 성가대석이 되었다. 평신도들은 나르텍스 근처의 네이브 지역이나 시각적으로 차단된 아일 공간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었던 초신자나 예비신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바실리카 내부 공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현관이나 교회입구의 회랑부분에서 앉아서 겨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뿐이었다. 콘스탄티누스 교회 이후 이런 위계적 패

턴은 기독교 바실리카 교회 건축에서 규범화되었고 내부 공간의 평면과 단면계획에서도 이런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초기 기독교의 균질적(homogeneity)이고 비 위계적이며 서민적인 성격의 교회가 기독교 공인 이후 바실리카 교회가 되면서 로마의 체계를 모방한 위계적이고 귀족적이며 국가적 조직을 가진 강력한 종교집단으로 변화된 것은 기독교의 로마화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교회건축이 위계화 되면서 이에 따라 나타난 또 하나의 특성은 바실리카 교회 건축의 복잡성(complexity)이다. 도무스 에클레시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들은 성찬식과 침례식 외에는 다른 형식이 거의 없는 매우 단순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아울러 그들이 모이는 장소인 주택도 위계성이 없는 단순공간으로 예배, 식사, 교제 등의 기본적인 행위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되고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사회의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의 위계에 맞는 각 직분의 여러 위계공간이 요구되면서 로마 포룸에 신전, 바실리카, 쿠리아 등등의 시설들이 모여 복합공간을 이루듯이 기독교 바실리카 교회도 예배당, 침례당, 기념무덤교회 등의 기능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 결과 트란sept, 지하 크립트(crypt), 헤드피스(headpiece)의 확장 등을 통하여 도무스 에클레시아와는 비교될 수 없는 복합공간의 바실리카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기독교 교회의 로마화를 보여주는 세 번째 요소는 교회 규모의 대형화(large scale)이다. 초기 기독교의 예배 공간은 주택이나, 주거시설을 개조한 도무스 에클레시아 등이었으므로 그 공간이 매우 작은 소규모(small scale)이었다. 실제로 가정교회의 교인 수는 30명 내외에 불과하였고 주택을 교회전용 개조한 도무스 에클레시아의 출석교인도 100여명 내외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교인들의 가정수가 증가하면 그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공간을 확보하는 대신 교회를 분할하여 새로운 가정교회를 만드는 방법으로 교회가 성장하였다. 그 이유는 초기 기독교의 기본정신이었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koinonia)가 가능한 규모가 40-50명 정도이었고 더 확장되어도 설교 시에 개 교인들의 표정을 읽고 설교자와의 접촉이 가능한 약 200m² 규모의 100명 미만의 교회를 지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인수가 늘어나면 가정교회나 도무스 에클레시아 교회의 개수를 증가시켜 일정 규모의 교인을 계속 유지하면서 성장하였다.

반면에 바실리카 교회는 신도수가 증가하면 회랑수를 3랑식에서 5랑식으로 늘이고 나르텍스와 앱스 수를 확장하는 방법 즉 교회 규모를 증가시켜 한 건물에 많은 교

28) L. Michael White, 전계서, p.108에서 인용

29) 박학재, 전계서, p.443에서 인용

인들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성장하였다. 이번에 조사한 22개 바실리카 교회의 평균규모는 3,208㎡로 도무스 에클레시아 규모의 15배를 넘는 대규모 공간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현상 역시 도무스 에클레시아 교회가 추구하는 인간적이고 친밀감 있는 소규모 형태의 특성을 포기하고 화려한 외형과 인간적 스케일을 벗어난 웅장한 규모의 건축을 지향하는 로마 바실리카 건축의 특성을 따라 기독교 교회가 로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체를 요약하면 가정교회나 도무스 에클레시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서민적이고, 비위계적이며, 자기희생적인 공동사회(Gemeinschaft)성격의 초기 기독교 교회건축이 콘스탄티누스 바실리카 교회를 중심으로 귀족적이고 위계적이며 체계적 교권체도를 통한 초국가적 집합사회(Gesellschaft)³⁰로 변화되어가는 교회의 특성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맞물려 있는 초기 기독교 바실리카 교회건축에 나타난 로마 바실리카 건축의 기독교화와 기독교 건축의 로마화의 분석에 관한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초기기독교 교회건축이 회랑형식, 네이브 율의 구성, 건축규모 등의 형식적인 면에서는 로마 바실리카라는 공공 건축양식을 충실히 수용하였지만, 교회의 위치선정, 단변 진입, 중심축의 강조, 트란셉트의 설치 등 그 세부적 내용에서는 기독교 교회라는 종교적 성격에 적합하게 건축적 형태를 변형 발전시켜 나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바실리카 건축의 기독교화의 결과는 로마 바실리카의 특성인 공공성(publicity), 개방성(openness), 중심성(concentration)이 종교 건축의 특성인 거룩성(holiness), 폐쇄성(closeness), 장축성(long axis)을 추구하면서 기독교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독교 교회건축이 로마화된 결과로는 기독교 공인 이전의 도무스 에클레시아 교회의 특성인 조직의 비위계성,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는 건물의 소 규모성, 예배의 단순성(simplicity)을 포기한 것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로마 바실리카의 특성인 조직의 위계성(hierarchy)이 나타나고 이에 따른 교회 건물의 복잡성(complexity)의 요소가 도입되어 거대한 스케일의 바실리카 특성이 교회 안에 들어와 로마화됨으로써 4세기의 초기 기독교

는 교회 건축의 변형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의 변화를 초래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시기였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4세기는 역사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이므로 이 시기의 초기 기독교 교회건축의 분석은 건축평면이나 단면 또는 건물배치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 사회적 상황, 특별히 기독교 교리의 생성과 변화 등의 요소도 바실리카 교회의 내 외부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Roberta Vicchi, The Major Basilicas of Rome, Saint Peter's, San Giovanni in Laterano, San Paolo fuori le Mura, Santa Maria Maggiore, SCALA group, 1999
2. Philippe Pergola, Christian Rome, Early Christian Rome, Catacombs and Basilicas, Vision S.r.l, 2000
3. L. Michael White, The Social Origin of Christian Architectur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0
4. Richard Krautheimer, Early Christian and Byzantine Architecture, Penguin Books Ltd. 1979,
5. Roger Stalley, Early Medieval Architecture, Oxford History of Art,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6. Ancient Roman Architecture: Colosseum, Architecture of Ancient Rome, Vitruvius, Roman Villa, Fishbourne Roman Palace, Basilica, Books LLC, 2010
7. Matilda Webb, The Churches and Catacombs of Early Christian Rome. Sussex Academic Press, 2010.
8. Freeman-Grenville, the Basilica of the Nativity in Bethreham, CARTA, 1993
9. Roloff Beny & Peter Gunn, the Churches of Rome, Simom and Schuster, 1981
10. Winnand W. Klassen, 서양건축사, 심우갑·조희철 역, 아키그램, 2003
11. 임석재, 서양건축사: 기독교와 인간, 북 하우스, 2003

[논문접수 : 2013. 10. 31]

[1차 심사 : 2013. 11. 21]

[2차 심사 : 2013. 12. 01]

[게재확정 : 2013. 12. 13]

30)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독일의 사회학자 톤니스(F. Tonnies)의 용어.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사회, 협동체, 게젤샤프트는 이익사회, 집합사회로 번역된다. 사회발전단계설, 두산백과